

서울건축사회, 상설 취업소개창구 개설

각 학교 협조받아 구인·구직자 연결

IMF한파로 실직 및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건축사회(회장 이세훈)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을 위해 상설 취업소개창구를 개설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건축사회 취업소개창구는 서울 및 수도권 각 학교로부터 취업희망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협조받아 운영중인데 경제난에 따른 취업난 해소뿐만 아니라 회원사들에게는 인력채용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나 직원을 채용하려는 건축사사무소는 서울건축사회(02-581-5715~8)로 문의하면 된다.

「98년도 건축사예비시험」 오는 5월 10일 실시

시험과목은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계획

98년도 건축사예비시험 일정이 확정 공고됐다.

올해 예비시험은 오는 5월 10일 치뤄지며 시험과목은 건축구조와 건축시공, 건축계획 등 3개 과목으로 객관식 선택형 문제들이 출제된다.

시험장소는 오는 4월 28일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된다(본지 '98년도 건축사예비시험 시행 공고 참조, 145쪽).

건축계소식 archi-net

신임 건교부장관에 이정무씨

경북 선산 출신으로 13~15대
국회의원과 자민련 원내총무 역임

이정무 전 자민련 원내총무가 건설교통부장관에 임명됐다. 신임 이정무 장관은 경북 선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한국 JC회장과 민정당 원내 부총무, 13~15대 국회의원, 자민련 원내총무를 역임했으며 평소 시원시원하고 막힘이 없는 성품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축허가건수 52%나 격감

서울시 1월중 건축허가건수 조사결과,
경기침체 및 투자위축 등으로 건축경기 위축 계속될 듯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한파로 서울의 건축허가건수와 연면적이 크게 감소했다.

지난달 19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구제금융 이후인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동안의 건축허가건수는 모두 1천53건으로 1년전 같은 시기의 2천1백89건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서울시는 또 1월중 건축허가 연면적은 45만1천5백26㎡로 지난해 1월의 93만9천4백11㎡보다 51.9%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주거용 건축물은 60.7%,

비주거용은 41.7%가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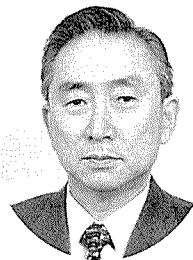
한편 서울시관계자는 “경기침체와 건축자재비 상승 및 자금난 악화에 따른 투자 위축 등의 요인으로 올 한해 건축허가면적은 지난해에 비해 30%~40%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건축가협회 21대 회장에 김한근씨

부회장에는 황일인, 김창수, 오기수씨
피선돼

김한근(주. 한엔김건축 대표)씨가 지난 달 18일 열린 한국건축가협회 총회에서 21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또 수석부회장에는 황일인(주. 일건건축사사무소 대표)씨가, 부회장에는 김창수(주.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씨와 오기수(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스페이스·오 대표)씨가 피선됐다.

신임 김한근 회장은 36년생으로 한양대 건축공학과와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방부 건설본부와 국방과학연구소 건설실장, 델타건축연구소 대표,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96년부터는 한국건축가협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해 왔다. 현재는 (주)건축사사무소 한엔김건축을 운영하고 있다.



김한근 신임 건축가협회 회장

한국건축가협회상

당선작 발표

'동승동 문화공간' 등 7개 작품 선정

한국건축가협회는 지난 2월15일 지난해 완공된 국내 건축물 가운데 창작성과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에게 주어지는 「한국건축가협회상」의 당선작과 매년 한국적 건축미가 뛰어난 작품과 건축가에게 수여되는 「엄덕문건축상」, 그리고 특별상인 「아천건축상」, 「초평건축상」의 각 수상자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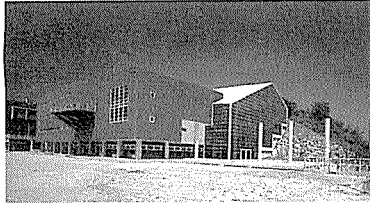
올해 「한국건축가협회상」 당선작에 선정된 작품은 건축가 승효상(이로재건축 대표)씨의 '동승동 문화공간',故 장세양씨의 '공간 신사옥', 민영백(주. 민설계 대표)씨의 '성북동 빌하우스', 김원(주. 광장건축 대표)씨의 '광주 가톨릭대학교', 최두남(최두남건축 대표)씨의 '샘터화랑', 김낙중(중원건축 대표)씨의 '시네플러스', 유걸(유걸건축 대표)씨의 '밀알학교' 등 모두 7작품이다. 또 「제9회 엄덕문건축상」은 재미건축가 김태수씨의 '금호미술관' 이, 제11회 아천건축상에는 조병수(조병수건축연구소 대표)씨의 '일산 ㄱ자집' 이 각각 선정됐다.

이밖에 건축발전에 공로가 큰 건축인에게 주어지는 「초평건축상」은 (주)종합건축의 이승우씨가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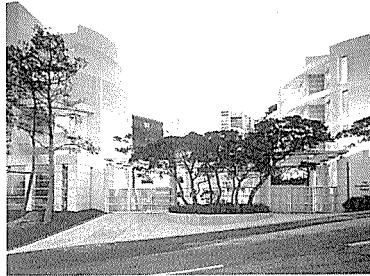
한편 건축가협회는 지난 2월 16일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98년도 임시총회에서 각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동승동 문화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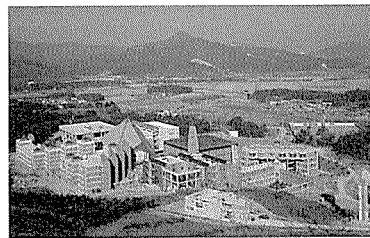
밀알학교



성북동 빌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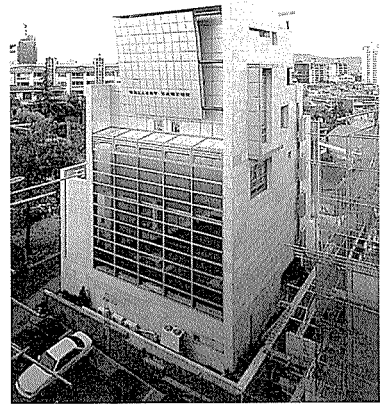
공간신사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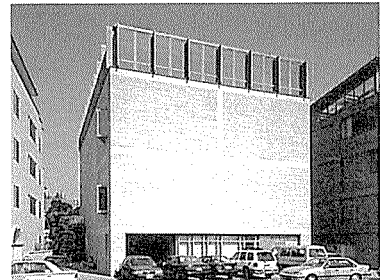
광주가톨릭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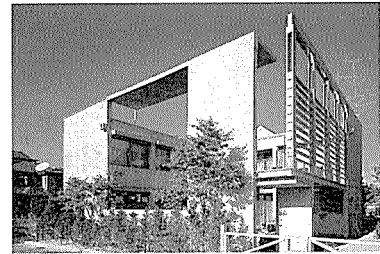
시네플러스



샘터화랑



금호미술관



일산 ㄱ자집

한국건축역사학회

'98 춘계 학술발표대회

오는 3월 21일 홍익대 와우관에서

한국건축역사학회에서는 오는 3월 21일 (토) 오전 10시부터 홍익대 와우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건축역사학회측은 올 한해동안 모두 여섯차례에 걸쳐 정기 학술발표대회 및 월례발표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중 학술발표대회는 3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홍익대에서 개최하고 월례발표

회는 4~6월과 10~11월에 매달 1회씩 각각의 주제하에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건축역사학회는 이번 춘계학술대회를 위해 3월 10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발표논문을 접수중이다.

문의 : 한국건축역사학회(성균관대 건축공학과 윤인석 교수 / 0331-290-7558)

■한국건축역사학회 98년도 연구발표회 일정

- 정기학술대회
- 춘계: 3월 21일(토) / 홍익대 와우관
- 추계: 9월 19일(토) / 홍익대
- 월례발표회
- 4월 18일(토) / 서양사
- 5월 16일(토) / 부산·경남의 건축 (장소: 부산)
- 6월 20일(토) / 이론, 비평, 설계
- 10월 17일(토) / 도시사 및 주거사
- 11월 21일(토) / 조선 고·중세 및 마을

토탈미술관 「건축아카데미」 제6기 수강생모집

전후 현대건축을 다룬 "건축의 이해Ⅲ" 강좌개설

서울 평창동에 위치한 토탈미술관에서 98년도 건축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좌는 오는 3월 5일 개강해 11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두시간씩 진행된다.

특히 이번 강좌에서는 르 꼬르뷔제를 비롯해 루이스 칸과 알바 알토, 안도 타다오 등 현대건축을 이끌어 온 세계 유명 건축가들의 작품세계를 들여다봄과 아울러 20세기 후반 현대건축의 흐름과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므로써 건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돼 관심이 모아진다. 토탈미술관은 1차 원서접수 기간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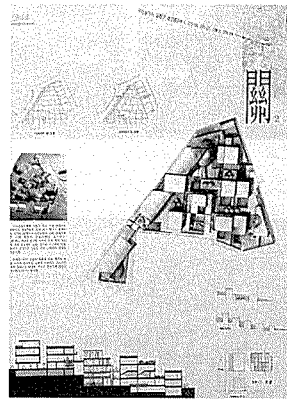
월말까지로 정했지만 50명의 전체 정원 가운데 결원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한해 첫강의가 열리는 3월 12일까지 2차 수강접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수강료는 30만원으로 수강생에게는 미술관 무료입관, 특별강연 등 각종 행사 초대, 미술관 출판물 증정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문의 : 토탈미술관(02-379-3994~5)

제4회 '탈도시주택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결과 발표

당선작에 홍재승씨의 '關' 등 10점 뽑혀



홍재승작 關

기존의 도시집합주택에 대한 탈도시집합주택의 설계방향을 제시코자 월간 '이상건축'이 주최한 제4회 탈도시주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홍재승(정림건축)씨의 '關' 등 10점이 당선작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건축가 조성룡씨와 김영섭씨가 심사를 맡았고 총 244점의 응모작 가운데 당선작 10점과 가작 10점, 입선작 10점 등 총 30점에겐 상이 주어졌다. 당선작은 다음과 같다.

- ◆당선작 명단
- 關(홍재승 / 정림건축)
- Habitat Landscape(박철형 / 경상대 건축공학과)
- 歸結(강민성 / 충남대 건축공학과)

- INNOVATION on the Private Open Space(이제현 /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 Void & Open Space(박은주 / 명지대 건축학과)

- Political Topography(지정우 / 중앙디자인)

- 모여살기(김영수 / 서울시립대 대학원)

- 도시+집합+나×너(박명원 / 부경대 건축공학과)

- 도시의 흔적(안우석 / 동국대 건축공학과)

- 火水木金土(손영복 / 정일엔지니어링)

경실련 제2기 「도시대학」 개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도시문제 전반에 대해 폭넓게 조명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도시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제2기 「도시대학」이 지난 2월 25일 개강했다.

지방자치단체 의원 및 관련 공무원, 실무자, 학생 등 도시문제에 관심있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개설된 이번 강좌는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주2회씩 오는 4월 10일까지 서울 정동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강의에서는 도시행정과 주민참여, 현대 도시사회와 시민운동, 도시교통, 도시하천관리, 도시계획, 도시시설물 안전관리 등 도시문제 전반을 주제로 한 강연



과 워크숍으로 진행되고 있다.

강사로는 권태준(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유재현(전 경실련 사무총장), 김병준(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박수남(건설교통부 시설안전과장), 이창우(서울시정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권원영(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씨 등 17명의 분야별 전문가 및 사회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02-764-3832)

조병수작 '성북동 스튜디오 주택' 제1회 CRI-ARC AWARD 수상작에 선정

월간 '건축인 POAR' 독자 선정



조병수작 성북동 스튜디오 주택

월간 '건축인 POAR'가 창간 2주년을 기념해 실시한 「제1회 CRI-ARC AWARD」 수상작 심사결과 '성북동 210번지 스튜디오 주택'을 설계한 건축가 조병수(조병수건축 대표)씨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여타 국내 건축상과는 달리 CRI-ARC AWARD 수상작은 지난해 월간 '건축인 POAR' 6~12월호에 소개됐던 6개 작품의 현역건축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1월 독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해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특히 이번에 수상작으로 선정된 '성북동 주택'은 심사에 참여한 대다수 독자들로부터 과거의 흔적과 현재가 중첩되도록 하면서 잃어버린 시간의 가치를 건축적으로 다시 찾아낸 점이 주목을 받았던 것

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이 행사와 같은 시기에 실시된 제3회 간향건축문학상 심사에서는 졸업을 앞둔 건축학부생의 사유를 잔잔하게 그린 김은정(부산 동의대 건축과 4년)씨의 '깊고 황량한 나의 세 번째 우물'이 가작에 뽑혔다.

간향건축문학상의 경우 이번엔 당선작 없이 가작 1편만이 선정됐으며 수상작품은 '월간 건축인 POAR' 3월호에 게재된다.

제7회 「김태수 해외건축여행 장학생」 선발

40세미만 건축설계분야 건축인 대상

김태수 해외건축여행 장학재단이 올해의 장학생을 찾고 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태수 해외건축여행 장학제는 그동안 건축설계분야의 젊고 유능한 건축인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해 엄격한 자격심사를 거쳐 그중 1인에게 미화 1만달러의 해외여행 경비를 장학금으로 지급해 왔는데 올해 최종 선발자 역시 여행 목적지나 여행기간 등을 자신이 직접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을 마치고 국내 건축사사무소에 근무중인 40세미만 자로 이전에 외국 유학 사실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청마감은 4월 30일까지로 아래 주소로 자신의 건축작품이나 글(그림·조각·건축 등에 관한 글 포함, 학위논문은 제외)이 수록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면 된다.

• 포트폴리오 제출처

TaiSoo Kim Partners
285 Farmington Avenue,
Hartford, CT06105,
USA
(전화 860-547-1970, 팩스 860-249-

0695)

• 신청서 배부·접수 및 문의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06-64 성리빌딩 2층
(주)티에스케이건축사사무소
(전화 02-588-2703, 팩스 02-588-2706)

「프랑스 건축모형전」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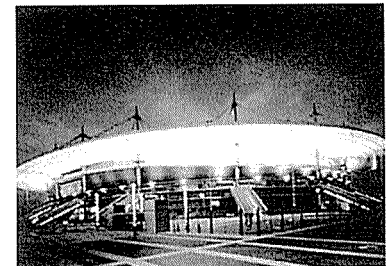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 건축모형작품 전시

아시아 각국에서 활동을 해온 프랑스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들의 건축모형작품들이 2월 20일부터 3월 7일까지 프랑스 문화원에서 전시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건축가 폴 앙드레의 「상하이 국제공항」을 비롯해, 장마리 듀티엘의 「남서울 TGV역사」, 장마르 샤르팡티에의 「상하이 오페라하우스」, 장폴 비기에의 「말레이시아 신도시」, 마키리·주블레나의 「프랑스 스타디움」 등의 건축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프랑스 외무성 산하 예술진흥협회(AFAA)와 외무부 등이 공동주최한 이번 전시회는 문화가 다른 외국 건축인들의 아시아지역에 대한 시각과 작품해법을 엿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문의 : 프랑스문화원(02-734-9768)



강석원씨, 한불문화협회 회장취임

한·불 문화교류 증진 기대돼

강석원 한국건축가협회 전 회장이 지난 1월 22일 한불문화협회(A.C.C.F: Association Culturelle Coreano Francaise) 제8대 회장에 취임했다.

현재 천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한불문화협회는 프랑스 유학생과 유학 희망자들을 위한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주한 프랑스 대사 장폴 레오 대사가 명예회장직을 맡고 있다.

미국임산물협회, 「목구조 주택 기술세미나」 개최

앞서 충남대에선 '목구조 설계특강' 열어

미국임산물협회 한국사무소(소장 안경호)는 미국산 목재에 대한 정보와 올바른 기술이전을 위해 지난 2월 24일 '목구조 주택 기술세미나'를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했다.

국내 목구조주택관련업계 전문가 150여명이 참가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 양국의 관련전문가 6명이 연사로 출연해 목재와 공학목재, 창과 문, 방부목 등에 관해 강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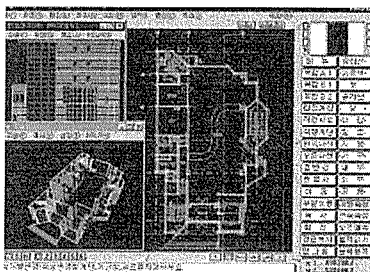
미국임산물협회는 또 이에 앞서 한국목조건축협회(회장 장상식 / 충남대 교수)와 공동으로 지난 2월 16일부터 5일간 충남대에서 '목구조 설계특강'을 개최하였다. 목조건축업계 설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특강에서는 목구조 설계에 대한 원칙과 이론, CAD 디자인, 구조설계프로그램 등에 대한 강의 및 실습이 펼쳐졌다.

한편 한·미 양국의 목조건축업계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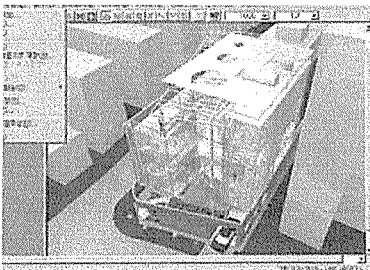
자들은 이들 행사를 통해 자리를 같이 하고 관련 정보교환은 물론 최근의 목재업계 불황극복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펼쳤다.

설계전용 한글3차원 캐드 'ARCHI-EAGLE 4.0' 출시

한국 NCC, 기존 3.5버전에 기능 추가



FINAL-A1.JPG



FINAL-T1.JPG

지난해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건축설계 전용 한글 3차원 캐드인 'ARCHI-EAGLE'이 더욱 새롭고 강력해진 기능의 새버전을 발표했다.

3차원 캐드는 기존의 2D캐드가 2차원 작업후 필요에 따라 전문요원에게 이를 다시 의뢰해 2D도면을 이용해 3D작업을 하였으나, 3차원 캐드인 'ARCHI-EAGLE'은 1인 작업만으로도 투시도는 물론 렌더링과 심의용 2D도면까지 자동작성되도록 돼 있어 그간 비싼 비용으로 인해 3차원작업을 망설여 왔던 중소 설계사무소에 2D와 3D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뛰어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함께 직관적 건축설계를 가능하게 한 3차원 캐드 'ARCHI-EAGLE 4.0'은 기존의 3.5버전에 비해 풍부한 3D라이브러리를 갖추고 있으며, 이중벽과 이중창호 그리고 AutoCAD third parts에서 지원하는 모든 창호표현과 2D블럭을 지원하여 2D도면의 자동작성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구조도면과 보·기둥리스트의 자동작성기능을 새롭게 추가하고 3D렌더링 프로그램인 'ArchiTrend TOMATO 2.0'의 첨가로 2D도면에서 3차원 투시도와 렌더링까지를 지원하는 통합 패키지로서의 면모를 갖췄다. 특히 'ARCHI-EAGLE ver 4.0'은 건축설계 전용 3차원 한글프로그램으로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이중창, 출창, 코너창 미서기, 여닫이 등의 창호와 이중벽 등의 표현이 쉽다는 점 그리고 Auto CAD에서 어떠한 한글을 사용하더라도 완벽한 호환이 가능한 점 등이 큰 특징이다.

또한 최초의 한글 렌더링 프로그램인 'ArchiTrend TOMATO 2.0'은 렌더링 프로그램으로서의 기능들 외에 50종 약 4천여가지에 이르는 풍부한 건축·인테리어 라이브러리, 나무와 전용 3차원 블럭, 각 도시의 월/시간별 태양각도 측정 측정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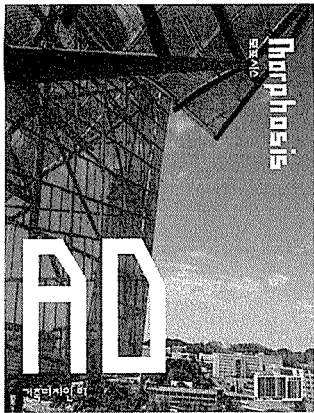
제품에 관한 문의는 NCC Corporation 본사(02-489-0289) 또는 각지방 NCC 공인딜러에게 하면 된다.

건축신간 안내

건축전문지 'AD' 창간
건설정책과 제도
건축법규 해설
도시디자인의 근대사

■ AD 창간호

아직 이렇다할 국제적인 건축전문잡지가 없었던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국제 건축전문잡지가 새로 창간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월간 '건축과 환경'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까지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한 AD誌는 국내의 현대건축가들을 엄선해 그들의 대표작을 철저하게 조명하고 아울러 보다 전문적인 시각에서 세계건축에 접근하고자 매호마다 세계적 건축사자들의 비평을 실고 있다.

또 이책은 특정 건축가를 선정, 그의 작품세계를 집중조명하는 3권의 작가집과 세계 각국에서 발표되고 있는 신작의 주인공 및 신진 건축가들의 작품모음집 3권 등 매년 6권씩 발행된다.

특히 작품모음집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독특한 작업을 하는 건축가들이 주로 다루지게 된다.

3월 창간호에서는 Thom Mayne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여 온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건축가그룹 Morphosis에 관한 기사와 그들의 최근 작품 「썬타워(Sun Tower)」, 「ASE디자인 센터(서울)」, 「Blades House(대만)」, 「Prado 내소날 박물관(미국 캘리포니아)」 등이 게재돼 있다.

건축과환경(02-661-2456) 발행 / 128~160쪽 / 5×7배판 / 3만원(연구독료 1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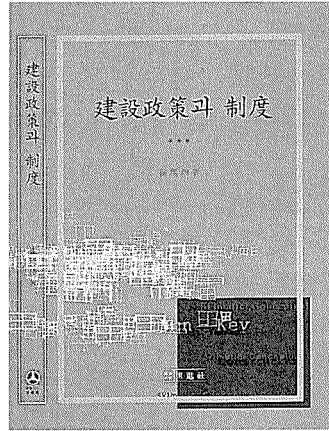
■ 건설정책과 제도

우리나라 건설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정책적 문제점들에 대한 논리적인 의견들이 제시된 책이 나왔다.

이 책은 필자인 서울시립대 최찬환 교수가 그간 각종 언론매체에 논단형식으로 기고한 글들을 정리해 한데 엮은 것으로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건축설계에 이어, 제2부에선 건설

정책분야로서 감리, 종합건설업,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Turn-Key), 건설사업관리(CM)에 관해, 제3부에선 건축법제분야로서 건축법 및 관련법규의 주요



과제에 대해, 제4부에서는 도시계획분야로서 도시설계, 상세계획, 계획제한구역, 준농림지역의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의견이 실려 있다.

따라서 이책은 IMF시대를 맞아 어려움에 처해있는 건설업계가 오늘의 난관을 헤쳐나가는데 적지않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최찬환著 / 도서출판 세진사(02-922-6371~3)발행 / 신국판 / 432쪽 / 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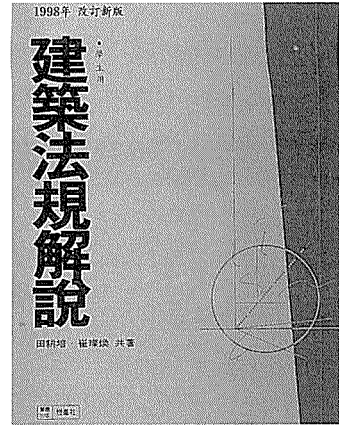
■ 건축법규해설

이 책은 건축법규 및 건축관련 법규에 관한 해설서이다.

98년도 개정판으로 출간된 이 책은 1977년 초판발간 이후 매년 한 두차례씩 개정판이 발간될 정도로 건축실무자뿐만 아니라 행정관계자와 학생, 일반에게까지 폭넓게 활용돼 왔다.

이 책은 법체계에 따라 관련법규의 내용과 질의의신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요약 정리해 놓은 것은 물론 도표 등의 자료들이 함께 수록돼 있어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이 책은 실무전문가를 위한 일반공과 학생용이 따로 발간돼 있다.

전경배, 최찬환共著 / 도서출판 세진사(02-922-6371~3) 발행 / 4×6배판 / 일반용 : 2260쪽 / 5만원 / 학생용 : 1001쪽/2만원



■ 도시디자인의 근대사

도시디자이너 조나단 바넷이 저술한 이 책에는 지난 5세기 동안의 도시디자인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도시디자인적 관점에서 산업화이전의 시대로부터 근대의 도시사회를 거쳐 현대에 이르는 도시의 발전과정을 도시의 형성배경 및 이념, 도시구성, 형태의 논리 등으로 체계있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 책에는 도면들과 사진 등 많은 자료가 곁들여 있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돼 있다.

조나단 바넷著 / 이정형 옮김 / 도서출판 국제(02-359-7606)발행 / 245쪽 / 7천원

